

## 스마트 도시 패키지 수출을 위한 종합지원모델 개발 착수한다

- 16일 해외건설 패러다임 전환 위한 원팀코리아 타운홀미팅 개최
- 정부·공공기관 지원도 단순 ‘후방지원’에서 ‘공공선도’ 역할로 전환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2월 16일(금) 오후 4시 서울 동대문디자인 플라자(DDP)에서 해외건설 관계자들과 원팀코리아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.
  - 이번 타운홀미팅은 도시개발의 혁신과 미래 전망을 시사하는 ‘Next Cityscape’를 비전으로, 해외건설 고부가가치화 및 연관 산업 패키지 진출을 통해 해외건설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,
  - 건설·인프라, 엔지니어링, IT,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해외 건설 유관 정책수요자 및 공공기관 등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1조불 시대\*를 앞두고, 해외 도시 개발사업 활성화를 첫 번째 패러다임 전환 과제로 삼을 계획이다.
  - \* '65년 최초 진출 이후 해외건설 누주수계 9,655.6억불('24.2월 기준)
  - 해외 도시개발사업 진출의 성공 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스마트시티 서비스 분야를 선제적으로 메뉴화하고, 전략 국가·사업 선정 및 종합지원모델을 개발한다.
  - 또한, 우리 기업의 리스크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패키지형 진출을 주도하고, 사업의 공공 디벨로퍼로서 사업발굴·사업화 지원·투자지원·EXIT지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민간 부담을 완화한다.
  - 아울러, ODA·K-City Network 등 정부 가용 수단을 활용한 도시개발 사업 진출 기반 마련, K-스마트 도시개발 수주지원단 파견, 네트워킹 지원 등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한다.

- 한편, 이번 타운홀미팅은 박상우 장관이 직접 진행을 맡아 기업, 정책수요자, 공공기관 등 해외건설 관계자들과 보다 자유롭고 솔직한 소통에 나선다.
  - 해외건설협회, KIND(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), 대우건설, LH 토지주택연구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,
  - 삼성물산·현대건설·한화건설 등 해외건설을 대표하는 건설기업을 비롯하여 도화엔지니어링·한미글로벌 등 설계, 감리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링 기업이 해외 도시개발사업 진출전략에 대해 토의하고, 네이버·엔젤스윙 등 IT·모빌리티 기업과 새싹기업(스타트업)도 참석하여 디지털트윈, 드론 등 스마트 기술을 도시개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.
  - 또한, 해외건설 현장훈련지원(OJT),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 정책수요자도 참석하여 현장 경험, 소감 등과 함께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방향에 대해 신선한 시각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.
- 박 장관은 “해외도시개발 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진출하여 리스크를 낮추고,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하여 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정부가 원팀으로 앞장서 해외도시개발 사업의 이정표를 만들어 나갈 것”이라고 강조하면서,
  - “해외건설 업계 및 유관 정책수요자에 실질적 지원책을 제공하고 보다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창구로 원팀코리아 타운홀미팅을 정례화할 계획이니,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건의사항도 가감 없이 제안해 줄 것”을 당부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	책임자	과 장	우종하 (044-201-3526)
		담당자	사무관	김기욱 (044-201-3528)

